

- 본문 말씀 | 창세기 1장 26-28절
- 결단 찬양 | “위대하신 주”

지난 한 주간 시편 8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했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으로 감사를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18~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어요. 산업혁명이죠. 동시에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나요? 바로 ‘서부 개척’이에요. 인디언들이 평화로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영국 등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땅을 채굴했어요. 무기를 가진 이주민들이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며, 자연을 파괴하고, 그곳에 도시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점령한 거예요. 원주민의 허락이나 동의는 없이 힘과 무력으로 무참히 짓밟은 이 사건의 가담자는 개신교도들이었어요.

1

절 취 선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한 근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해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기도 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을 뜻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발생했어요. 18~19세기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셨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 큰 오해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청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해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2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해요. 주인이 자신의 하인을 불러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겼고, 잘 관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들은 성실히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관리한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보관하기만 했어요. 이윽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크게 혼이 나게 돼요. 주인이 잘 보관해 달라고 한 뜻은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니 이 돈을 맡긴 거야. 그것을 가지고 더 좋게, 풍성하게 관리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맡아 성실히 감당해야 할 청지기예요. 그 일은 자연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자녀인 우리가 잘 다스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자,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럼,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먼저 ‘주인 의식’을 가지자는 거예요. 주인 의식이란 주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한과 책무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연과 환경,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내 것처럼 여기고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임원이나 섬김이를 맡게 되면 예배 전후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실 환경을 점검하는 거죠. 히터나 에어컨, 선풍기 등이 잘 작동되는지, 조명 또는 음향기구나 악기, 빔프로젝트 등 예배를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공간과 여러분을 대표해서 관리하도록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중한 공간을 내 것처럼 최선을 다해 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되고,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와 내 주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임을 믿고, 소중히 다루고 더 좋아지게 하는 태도가 바로 주인 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현재 국민 4분의1 가량이 믿음을 가지게 된 까닭, 또 전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세워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건 하나님이 도우심은 물론이요, 교회 안에 ‘주인 의식’을 가진 성도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배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겼기에 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주인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청지기로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여겨질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또는 비전에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깨끗하게 바뀌어야 할 많은 영역이 분명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정적이고 창조의 질서와 어긋난 모습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직업을 갖거나 혹은 비전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그릇된 세상의 영역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바꾸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를 고치고 어긋난 관계들을 선하게 회복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파견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옆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내 옆의 친구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그분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에 더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말이 나와요. 번성하라는 말은 이 땅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전도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정복’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복을 다른 사람을 꺾어야 한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일을 두고 ‘정복’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복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정복하라’를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되지요? ‘정복당하지 마라’예요. 무엇에 정복당하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정복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일부이긴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차를 빌려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심지어 사고가 나기도 하는 등의 일탈을 일삼는 청소년이 있어요. 이러한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돋보이려고 그릇된 행동을 부추기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달라요. 세상의 가치와 시선에 정복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길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른 가치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최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 내는 사람들을 보면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청지기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바른 경찰이 되어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바꿔나갈 수 있고, 의사가 되어서 형편이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또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에게 제대로 된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잘못되고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는 일!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일은, 죄로 인해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데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해요. 그렇게 나아갈 여러분의 한 주를 기대합니다!